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5호 [무게 제23227호] 주제99 (2010)년 10월 2일 (토요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열렬히 축하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경축대회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경축대회가 1일에 진행되었다.

경축대회는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끝없는 환희와 격정으로 세차게 벌어졌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대회장들에 모셔져 있었다. 붉은기들이 나뭇기고있는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를 비롯한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대변들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정치적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마련되고 조선혁명의 앞길에 더욱 밝고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성대국의 밝은 앞날과 혁명의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절리를 실감깊이 새기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 한결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우리 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가 있다는 확신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옹호보위하며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저히 다져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어머니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치말씀을 높이 받들고 혁명선에서 비

약을 일으키며 북방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전력공업부문 기업체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남흥청년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주체비료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고 새로운 기초화학제품생산공정을 꾸리며 순천화학연합기업소와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서 생산을 활성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대한 감회와 애정을 깊이 품고있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특출한 정치실력과 탁월한 령도로 장구한 기간 준엄한

시련을 과감히 헤치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민족사에 특기할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앞길을 밝혀주시었으며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태천발전소, 백마-철산발전소, 묘향산발전소, 닭골발전소, 태천발전소, 양어장 등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편이하여 일떠세웠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도내 공장, 기업소들에서 최첨단을 통과하기 위한 투쟁이 과감히 벌어지고 농업부분에서 당의 농업혁명방침이 구현되어 생산잠재력이 비상히 강화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과 배짱을 지니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오늘의 대고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고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을 김일성민족의 무궁불멸과 주체혁명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일대 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열렬히 축하하는 황해북도 경축대회장

황해북도에서

황해북도 경축대회에서는 김창룡 도당위원회 비서의 연설이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기사장 김영철,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사리원시 대성철동농장 관리위원장 류복미,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비서 김영수,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사리원시립대학 학생 최정만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을 김일성민족의 무궁불멸과 주체혁명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일대 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으며 기쁨주화를 발행함에 대하여

전체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34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것은 자주시대 혁명정당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양양한 전도를 열어준 정치적사변이었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우리 당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50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주체의 당건설위업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하고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을 가진 불멸의 당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대중적당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빈리우에서 천리마의 억센 나래를 펼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거연히 솟아오를수 있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승리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주체의 당건설위업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은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속 완성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당주체사상화의 기치높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신문들 특집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와 기네신문들이 특집하였다.

로씨야신문 《나호트스키라보치》 9월 24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의 리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이것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명언이다.

당의 창건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었다.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오늘날 조선로동당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되고있는 선군정치도 역시 나라의 현실적요구와 자주적인 간으로 살려온 인민들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정치방식이다.

조선로동당은 적대세력의 항시적인 위협을 받고있는 조건에서 국방분야에 많은 자금이 요구되었지만 막대한 품을 들여 대중봉사자들을 훌륭히 꾸려놓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전반적 11년제의 무료교육과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에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없는 나라이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끊임없는 헌지지도의 길에서 인민들



기념주화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금화) 기념주화 《조선로동당창건 65돐》 (은화)

1) 금화
금화의 앞면에는 중심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조선로동당창건 65돐》, 《1945》의 기발, 해살을 배경으로

2) 은화
은화의 앞면에는 중심에

의 생활형편부터 알아보시며 그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친이비이 심정으로 돌보아주시는다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나라 신문 《브이브르》 9월 24일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환호하는 군중에게 담배를 보내시는 사진을 모시고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어 세기를 이어 백전백승을 펼치는 준엄높은 당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당의 위대성은 령도자의 위대이다. 김정일령도자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조선로동당은 당의 창건자이신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으로 공화국을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웠다.

조선사상을 기초한 당과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라세드 칸 대는 9월 2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회에서 뜻깊은 조선로동당창건 기념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에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65년만에 이르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면시키고 온갖 시련속에서도

인민은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민족사적인 대경사에 접한 천만군민의 환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로 높이 추대한 조선인민군 당대표회가 진행된 뜻깊은 그날로부터 환회에 넘쳐 경축분위기로 뒤흔어지던 우리 조국, 존엄높은 우리 조국이 바야흐로 강성대국으로 치솟아오르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장중하게 울려퍼진 보도는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진실적너장군 김정숙동지의 송고한 뜻이 하늘에 닿은 일대 민족사적인 대경사이며 전당, 전군, 전민의 간절한 소망실현과 인류의 행운을 알리는 장쾌한 모습이다. 사람도 산해도 죽어도 파도를 아물렸 그대안은 꼭한 일대 환희의 이 시각, 저 멀리 백두전장의 험준한 산발들을 헤쳐온 항일의 로투사들과 준엄한 전하의 나날 락동강의 불비를 뚫고온 로병들의 눈가에도, 강성대국건설대전참전자들의 얼굴에도 격정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로숙한 당, 세련된 당, 불패의 당, 강철의 당으로서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의 로도적위훈을 최대의 경지에서 파시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회, 강대한 조선로동당의 력사가 과연 무엇으로 하여 그처럼 눈부시게 빛나는가를, 우리 당의 천만년앞길에 과연 어떤 위대한 대로가 펼쳐져 있는가를 확실히 하는 위대한 승리자들의 대화실. 자주와 정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민족사나를 혁명의 천만년 앞길에 단단히 다져 온 용감무쌍히 달려온 선군정치적 열렬한 옹호자, 철저한 판찰자이던 선군조선의 옹호한철의 대우,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사, 제자들이 하나도 못진 찬안의 대우가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드린 최대의 경의이다. 강철의 혁명무력의 향도적력량, 천만군민의 영명의 보호자, 민족반대변역을 푼채워주는 어버이당의 참된 아들딸들의 영원불멸할 일련단심의 발원이다. ☆ ☆ 우리와 같은 박소소리, 만세소리가 커다란 총격으로 인류의 심장에 가 닿아 비사한 의미를 안겨준다. 나라의 전성기는 무엇으로 펼쳐지는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주제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굳은 맹세를 다지고 혁명의 길에 나서기를 약속하고 세련된 병도로 우리 당을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 시키시였으며 그 존엄과 권위를 온 세상에 높이 펼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인민대중중심의 정치로 이 땅에 찬미찬락을 일터서우시고 정철한 난관과 시련을 강인한 신념과 의지로 헤치시며 세계적병력의 시대를 장엄히 펼치시고 우리 인민을 위대한 승리자들로 역사에 키우신 위대한 병도로, 우리 인민모두의 운명의 전부이시고 사랑하는 선군조선이시며

민족반대변역의 위대한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민족사적인 대경사, 이는 수습성상의 하루하루를 오로지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 대한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충정과 절대불변의 신뢰심의 분출이 아니인가.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위대한 업적에 삼가 머리숙여지고 오직 한분 그이만을 믿고 그의 손길과 혁명의 험준한험들을 용감무쌍히 넘어 영광의 오늘에로 와닿을 것임을 없는 로정을 뜨거우 격정에 힘써 뛰어넘어보게 하는 이 시각, 우리 조국에서의 선군혁명위업의 최정성기를 세우며 세계는 진정 감동하리라. 위대한 총정과 의리를 앞세우고 전진하는 혁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기에 대하여. 정치사와 혁명사에 그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혁명의 수령에 대한 순결한 의리에 충만되던 능히 헤쳐나갈수 있고 미중유의 성공담을 높이 쌓을수 있다는 진리를 실천으로 완벽하게 확증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업은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이다. 오늘에 존재하는 모든것은 어찌와 잇닿아있다.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세계의 정의와 평화의 위하여 노력과 같이 전진하는 선군혁명의 명마루에서 위대한 항해를 펼쳐온 조선로동당의 천만년미대를 내다보는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추억의 파도가 격량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 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융성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전도는 참으로 양양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의 토양에 뿌리신 주제사상의 씨앗을 무성케 해주신 특출한 업적만으로도 걸출하고 세련된 병도로 만민의 절대적인 공인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지난 세기초에 혁명을 선포하였던 사회주의가 혁명의 배신자들에 의하여 좌절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도 그 과학성과 진리성을 확증하시고 실천적모험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성벽을 철벽으로 지키신 공적으로 정지계의 원로로 진보적인 영의 다함없는 흥미심을 자아내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계급주의의 반혁명적위업에서 기를 피지 못하고 정치경제적압박에 투항하여 수십년간 휘날려온 혁명의 붉은기를 내리울 때에도 혁명적신념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의 성공담을 높이높이 쌓으신 걸출한 정치로, 그 누구도 수령님께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쌓아올린 업적을 대신할수 없다고, 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전사의 한사람이라고, 나의 필생의

사명은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김일성시대의 미대를 더 아름답게 빛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고 하시고 지난 수습성상 수령님을 위한 김일성시대의 미대를 더 아름답게 빛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고 하시며 지난 수습성상 수령님을 위한 김일성시대의 미대를 더 아름답게 빛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고 하시며 지난 수습성상 수령님을 위한 김일성시대의 미대를 더 아름답게 빛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고 하시며 지난 수습성상 수령님을 위한 김일성시대의 미대를 더 아름답게 빛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고 하시며 지난 수습성상 수령님을 위한 김일성시대의 미대를 더 아름답게 빛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고 하시며 지난 수습성상 수령님을 위한 김일성시대의 미대를 더 아름답게 빛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고 하시며...

민족이 단결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나는 일심단결을 주장한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무적필승의 무기이다. 우리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의 난관을 뚫고나가야 한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은 당의 생명이며 통일단결은 곧 당의 힘이다!... 우리 당력사에 그 사변적의로 하여 천추만대 길이 빛날 조선로동당대표회회는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원으로,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위대한 정치철학이 얼마나 정정당당한가를 힘있게 실증하였다. 사나운 광풍에도 끄떡없는 역센 나무의 기상처럼 시련을 당할수록 더욱 튼튼같이 몸서져 혁명의 진화적극명을 노동쳐 열어나가는 강대한 조선로동당, 불사신마냥 폭풍처럼 전진하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모습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특유의 위대한 정치철학이 숨쉬며 맥박친다. 민족사적인 대경사의 날을 맞아 감격하여 온몸을 그로우로 불태우며 울리는 천만군민의 뜨거운 눈물,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보여줄수 없고 지어낼수 없으며 우리의 원수들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자기의 병도자, 자기의 당을 우러러 울리는 천만군민의 뜨거운 눈물, 그 순결한 눈물들에 눈뜨여 있다. 어버이장군님품이 없으면 살수도 없고 행복할수도 없으며 장군님 따라 살며 투쟁하는 길에 강대한 선군조국도 있고 민족민당의 통성변영이 있다는 선군혁명사의 정의가.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수습성상을 걸치는 당령도사를 통하여 조선이 간고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주체의 봉화로 선군혁명의 대지를 불태우며 정치사상적으로, 도덕리적으로 거창한 승리를 이룩한 지난 10여년간에 더욱 사무치게 절감한 진리이다. 지나거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일련단결로 심장의 피를 끊어서 수령님께서 맡기고가신 이 나라, 이 인민을 위해 혁명앞에 붙어 쳐오는 바람을 다 막아야 하는것을 당원들 본분으로 여기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더 잘하게 해주셔야 사시정철 폭풍사나운 강행군길에 계시는 어버이장군님, 어렵고 힘들수록 군대와 인민에게 더 의지하시고 류페없는 사랑으로 군대와 인민을 꿰찰같이 단결시키시며 걸음걸음 비사한 지략과 헌신으로 원수들의 악랄한 책동을 자승자복으로 만들고 김일성민족의 저승사자의 복락을 위해 전진미담의 강행군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그는 진정 행복한 날이나 준엄 단결의 력사에 조선로동당과 같이 그처럼 훌륭하고 완벽한 단결을 이루한 땅은 일찌기 없었음을 다시금 시위한 철두철미 일심단결의 대화합

최고사령관기와 당기, 공화국기를 세차게 휘날리며 만세의 환호성 높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사무치는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는 백두산혁명장군, 원수들의 혼을 송두리채 뽑는 무적의 대우, 강성대국건설대전적의 독재대로, 조선로동당대표회의 격동된 열기로 온 나라에 수뇌부결사옹위의 기상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장장 65성상의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력사로 광휘롭게 빛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들을 우러러 천군에 열화같이 달려오른 옹호중 7련대의 승결,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가슴에서 고동치는 태성 할머니의 송고한 정진세게, 과연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이 이런 위대한 화폭을 펼쳐놓았는가. 김정일동지는 조선의 미래이고 조선혁명의 운명입니다. 우리 조국 이 영원무궁토록 번영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자면 김정일동지가 건강하여야 하며 전당, 전군이 김정일동지의 병도로 잘 받들어야 합니다! 조국은 빼앗겼다가도 투쟁을 벌여 다시 찾을수 있지만 혁명의 수뇌부를 잃으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끝장입니다! 조선혁명의 최고뇌수이신 김정일동지를 목적으로 옹호보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에게 남기신 어버이수령님의 이 간곡한 유언을 제일선에서 믿음직하게 받들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 백두산혁명장군의 혁명적신념, 이는 수뇌부결사옹위이자 곧 선군 정치의 위대한 승리이라는 불변의 의지이다.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장병들이 불어낸 총검마다에 조선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할 신념과 의지의 맹세가 서리발친다. 시대정신의 창조자, 체현자이며 선도자인 일당백장병들이 부르는 신념과 의지의 노래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라라》가 백두산 총대바람으로 창창히 펼쳐진 사랑하네 내 조국의 깃고 푸른 하늘가에 울리며 메아리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순간순간이 신념의 구호를 만장약하며 누구나 오늘의 개혁, 차광수, 오중홀이 되려는 열망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슬하에서 사상의 강자, 무적필승의 대우로 자란 우리 군대에 관통되어있는 그기도 높고 절절한것 아니인가. 이 땅에 불어쳐오는 각양각색의 바람을 서리발총대로 쳐잡고 온 나라를 무적필승의 철의 숲으로 무성하게 가꾸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 그 위대하고 무수한 공적의 깊고 광활한 정진세게이다. 그에게 김일성조선의 무궁번영이 담보된다는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펼쳐진 조선로동당대표회, 전군, 전민의 가슴속에 찍 하던 천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진과 기백은 어제도 오늘도 배일도 김일성민족의 가장 큰 계보이며 세상에 비길데 없는 무기이다.

명도자의 위대성, 로련한 정치원로를 높이 모신 민족의 위대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세계에 소리높이 선언한 일대 사변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 는 우리 당의 백전백승, 민족존엄의 상징, 세상에 가장 훌륭한 우리의 부강조국이다. 선군조선의 위대한 승결, 이는 곧 가없이 펼쳐진 조선로동당의 전도로 백두산총대바람을 거세치게 일구며 오늘의 대경사를 맨 앞장에서 안아온 무적의 정진세게도 보라. 그러면 누구나 총대를 앞세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정치를 떠나 오늘의 이 민족사적 대대하여 심장으로 절감할것이다. 총대를 중시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 나라는 끄떡없다는 자신 단단한 배짱으로 온 나라에 백두산 총대바람이 폭풍쳐 휘몰아치게 한 신 탁월한 선군명장 김정일장군, 총소리 한번 크게 울리지 않고서도 누구도 상상할수 없고 누구도 이룩할수 없는 대승리를 련속 이룩하시어 세계를 매혹시키시는 강철의 평정, 하늘땅을 뒤엎는 폭풍속에서도, 백만대의 포위에 들어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기상으로 천만대 적을 위락허락하는 권하여일명장의 대담성이 우리의 옹호한 혁명 무력에 용용히 굽어진다. 자주적군위병이 노예나, 혁명의 이 물음앞에 우리는 서술 푸른 백두산총대로 대답하지 않았던가. 선군, 우리의 생명이며 승리의 상징인 선군을 위해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얼마나 멀고먼 피어린 길을 헤쳐오시였는가. 총대를 떠난 자주성이란 있을수 없다! 총대에 높이 쓸면 노예가 된다! 총대로 우리의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고 주제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가슴떨듯 한 환희, 승리의 가슴에서 멀리 흘러간 시련의 나날들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가슴에 걸을 길을 대전을 벌리시며 김일성조국을 수호하시고 강성대국의 대대로를 닦아놓으시던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참으로 눈물겹게 어려운다. 오늘의 이 최후의 대경사가 우리의 위대한 신념과 헌신의 결정체에게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웠는 그 무수한 선군의 산악에서 울리는 승리자들의 환호 그기도 높고 절절한것 아니인가. 이 땅에 불어쳐오는 각양각색의 바람을 서리발총대로 쳐잡고 온 나라를 무적필승의 철의 숲으로 무성하게 가꾸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 그 위대하고 무수한 공적의 깊고 광활한 정진세게이다. 그에게 김일성조선의 무궁번영이 담보된다는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펼쳐진 조선로동당대표회, 전군, 전민의 가슴속에 찍 하던 천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진과 기백은 어제도 오늘도 배일도 김일성민족의 가장 큰 계보이며 세상에 비길데 없는 무기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는 우리 당의 백전백승, 민족존엄의 상징, 세상에 가장 훌륭한 우리의 부강조국이다. 선군조선의 위대한 승결, 이는 곧 가없이 펼쳐진 조선로동당의 전도로 백두산총대바람을 거세치게 일구며 오늘의 대경사를 맨 앞장에서 안아온 무적의 정진세게도 보라. 그러면 누구나 총대를 앞세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정치를 떠나 오늘의 이 민족사적 대대하여 심장으로 절감할것이다. 총대를 중시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 나라는 끄떡없다는 자신 단단한 배짱으로 온 나라에 백두산 총대바람이 폭풍쳐 휘몰아치게 한 신 탁월한 선군명장 김정일장군, 총소리 한번 크게 울리지 않고서도 누구도 상상할수 없고 누구도 이룩할수 없는 대승리를 련속 이룩하시어 세계를 매혹시키시는 강철의 평정, 하늘땅을 뒤엎는 폭풍속에서도, 백만대의 포위에 들어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기상으로 천만대 적을 위락허락하는 권하여일명장의 대담성이 우리의 옹호한 혁명 무력에 용용히 굽어진다. 자주적군위병이 노예나, 혁명의 이 물음앞에 우리는 서술 푸른 백두산총대로 대답하지 않았던가. 선군, 우리의 생명이며 승리의 상징인 선군을 위해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얼마나 멀고먼 피어린 길을 헤쳐오시였는가. 총대를 떠난 자주성이란 있을수 없다! 총대에 높이 쓸면 노예가 된다! 총대로 우리의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고 주제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가슴떨듯 한 환희, 승리의 가슴에서 멀리 흘러간 시련의 나날들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가슴에 걸을 길을 대전을 벌리시며 김일성조국을 수호하시고 강성대국의 대대로를 닦아놓으시던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참으로 눈물겹게 어려운다. 오늘의 이 최후의 대경사가 우리의 위대한 신념과 헌신의 결정체에게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웠는 그 무수한 선군의 산악에서 울리는 승리자들의 환호 그기도 높고 절절한것 아니인가. 이 땅에 불어쳐오는 각양각색의 바람을 서리발총대로 쳐잡고 온 나라를 무적필승의 철의 숲으로 무성하게 가꾸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 그 위대하고 무수한 공적의 깊고 광활한 정진세게이다. 그에게 김일성조선의 무궁번영이 담보된다는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펼쳐진 조선로동당대표회, 전군, 전민의 가슴속에 찍 하던 천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진과 기백은 어제도 오늘도 배일도 김일성민족의 가장 큰 계보이며 세상에 비길데 없는 무기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국가수반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아 부 자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대통령 무 력 총 사 령 관
군락크 에벨레 조 나 란 각 하
나는 귀국인민의 뜻깊은 민족적명절인 나이지리아독립 50돐을 맞으며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친선적인사를 보냅니다. 독립후 지난 반세기동안 곤련하고 용감한 나이지리아인민은 결함없는 온갖 시련을 이겨내면서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총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민족적단합을 공고히 하고 발전된 나이지리아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평 양
주제99 (2010)년 9월 27일

니코시아
끼쁘로스공화국 대통령 디미뜨리스 크리스토피아스각하
나는 뜻깊은 독립절을 맞아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끼쁘로스의 평화적 통일과 발전, 번영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평 양
주제99 (2010)년 10월 1일

피나르키
기네공화국 대통령 대리 대통령부 국방담당장관 세우바 꼬나페각하
나는 기네독립 52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총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평 양
주제99 (2010)년 9월 28일



백두의 혈통을 이어가리까
조선로동당을 쫓아 나날리며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계승자들의 대우가 오른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크나큰 민족적중지와 자부심이 피뚫는 가슴마다에 넘쳐나고 힘찬 발걸음마다에 어려웠다. 백두의 정기를 혼함에 안으시고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어 기에 언제나 인민을 이끌어 승리 떨치는 불패의 당을 따라 백두에서 시작된 주제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 할 철의 의지가 계승자들의 대우에 맥백히 굽어쳐흐른다. 그렇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병도마라 혁명의 천만년길을 걸어도 백두의 나날에 우리 당은 영원히 김일성민족의 가장 큰 계보이며 세상에 비길데 없는 무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감격과 영광, 열화같은 흐름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청년학생들의

경축대회

인민보안부경축대회

인민보안부경축대회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청년학생들의 경축대회가 1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과 환희를 안고 모여온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청년학생들로 차넘치고있었다.

대회장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라는 구호들이 연이어 울려나왔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라는 구호들이 연이어 울려나왔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라는 구호들이 연이어 울려나왔다.

경축대회를 일떠세우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파시로 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동계급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선봉부대로 내세워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어 직업동맹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혁명적대교조의 자랑스러운 력사가 세기를 이어 흐르게 되었으며 도처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화려한 사면들이 일어나고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혁신과 비약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되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위대한 당의 항도자라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역세계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동맹안에 당의 유일 사상체제와 유일적로동제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동맹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하는 선군혁명정적으로 구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동맹안에 사회주의의 날마다 새겨져 있다 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군사를 중시하고 원군미풍을 높이 발휘하여 선군조선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경공업과 금속, 전력, 석탄공업부문,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학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각급 직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최선적정시사업과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모두가 선군시대 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만방에 떨쳐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통호협동농장 농장원 황미선, 김일성종합대학 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리용일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는데 배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립없는 의지를 보여준 일대 정치적 사변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청년들이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전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위훈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며 학생청년들이 최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배우고 또 배우 강성대국건설의 유능한 인재로 튼튼히 준비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동맹을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한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 일심단결의 대오로 꾸리며 청년학생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선군청년전위들로 여 세계 키워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면서 모든 청년학생들이 위대한 당의 명도자라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축대회를 일떠세우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늘리는 명세서이 채택되었다.

그들은 청년들이 조국보위를 신성한 의무로, 참된 애국으로 여기고 선군혁명의 제일기둥이며 주력군인으로서 일선에 진출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하며 청춘시절을 값있게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이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전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위훈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며 학생청년들이 최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배우고 또 배우 강성대국건설의 유능한 인재로 튼튼히 준비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동맹을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한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 일심단결의 대오로 꾸리며 청년학생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선군청년전위들로 여 세계 키워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면서 모든 청년학생들이 위대한 당의 명도자라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축대회를 일떠세우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늘리는 명세서이 채택되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1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고 쓴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인민보안부장 주상성동지와 인민보안부 일군들, 인민보안부원들, 조선인민보안군 장병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리병삼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과 장병들인 최준화, 김국룡, 리용수, 군관 오인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전당, 전군, 전민의 일치한 의사와 념원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보안부와 인민보안원, 대내외 안전부 경축대회를 일떠세우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늘리는 명세서이 채택되었다.

내무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그들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1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고 쓴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인민보안부장 주상성동지와 인민보안부 일군들, 인민보안부원들, 조선인민보안군 장병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리병삼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과 장병들인 최준화, 김국룡, 리용수, 군관 오인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전당, 전군, 전민의 일치한 의사와 념원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보안부와 인민보안원, 대내외 안전부 경축대회를 일떠세우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늘리는 명세서이 채택되었다.

명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대중속에 뿌리박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이 강화발전시키시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고 군민대단결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군사강국으로 용맹지게 하시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에서 연속적으로 성공하고 CNC기술이 세계적수준을 돌파하며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로폭포가 쏟아져내리는데와 같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경이적인 사면들이 연이어 펼쳐지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명도와 은정에 의하여 인민보안기관이 계급투쟁의 앞장에서 혁명의 수뇌부를 옹호보위하고 국가의 법을 무기로 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일심단결과 인민의 생명체산을 믿음직하게 보장해나갈수 있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1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고 쓴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인민보안부장 주상성동지와 인민보안부 일군들, 인민보안부원들, 조선인민보안군 장병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리병삼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과 장병들인 최준화, 김국룡, 리용수, 군관 오인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전당, 전군, 전민의 일치한 의사와 념원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보안부와 인민보안원, 대내외 안전부 경축대회를 일떠세우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늘리는 명세서이 채택되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우리 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역세게 싸워나가기야 합니다.》

연설자들은 인민보안기관의 전제 당원들과 인민보안원, 내무군장병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김일성조선의 무궁번영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평온체제와 군공을 철저히 세우며 우리 당의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로폭포가 쏟아져내리는데와 같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경이적인 사면들이 연이어 펼쳐지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은 사회에 사회주의적질서와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그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무자비하게 짓고 불굴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체산을 믿음직하게 보장해나갈수 있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명도가 있고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불패의 혁명적투쟁력이 있어 김일성조선의 앞길을 위황찬란하다고 하면서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가 진행되는동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고 당의 선군명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승리적전진을 범적으로 튼튼히 담보해갈 참가자들의 철석의 의지가 담긴 구호들이 연방 울려 퍼졌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늘리신 명세서이 채택되었다.

경축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대회에서

당창건사적관 구내에서 진행된 경축대회에서는 현상주 직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양직맹위원장 리수진, 평양곡산공장 초급직맹위원장 김영락, 평양철도국 직맹위원장 엄기진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전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이며 이 땅위에 기이

청년학생들의 경축대회에서

청년공화외국장에서 진행된 경축대회에서는 리용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보고에 이어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비서 최인실, 평양방직공장 청년동맹위원회 비서 최영찬, 락랑구역



청년학생들의 경축대회



인민보안부경축대회

이 땅위에 기이한 경이적인 현상주 직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양직맹위원장 리수진, 평양곡산공장 초급직맹위원장 김영락, 평양철도국 직맹위원장 엄기진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전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이며 이 땅위에 기이

주체과학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을 축하하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1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고 쓴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인민보안부장 주상성동지와 인민보안부 일군들, 인민보안부원들, 조선인민보안군 장병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리병삼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과 장병들인 최준화, 김국룡, 리용수, 군관 오인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전당, 전군, 전민의 일치한 의사와 념원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보안부와 인민보안원, 대내외 안전부 경축대회를 일떠세우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늘리는 명세서이 채택되었다.

들만 65살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종공세에서 최첨단과학기술의 힘있게 떨치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 전두의 불길은 지퍼주신 김책체첸합기업소에 과전된 과학자들의 창조적적성을 동원하는 사업을 잘 짜고들어 주체철생산과 압연공정의 CNC와 생산의 높이에 보장하였다. 이와 함께 여러 나라의 CNC과파전을 이룬 성과에 토대하여 추진중에 있는 중요대상들의 CNC와 생산을 높이는 수준에서 실현해나갈것이다.

회전발전소건설을 앞당기고 나라의 공력차원과 조수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력 생산을 더욱 늘이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어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최첨단과학기술과로 경공업과 농업발전을 적극 추동하

를 앞당기고 나라의 공력차원과 조수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력 생산을 더욱 늘이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어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최첨단과학기술과로 경공업과 농업발전을 적극 추동하

석탄증산으로 당의 위업을 받들겠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조국과 민족의 대정사를 맞이한 석탄공업부문의 전제 일군들과 탄부들은 크나큰 감격과 격정을 일으켰다.

결출한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회색의 정치원로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변함없이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인민군장병들과 전제 인민들의 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이며 민족의 대정사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관철

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기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이 무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열매되고는 스승리운 투쟁입니다.》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기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이 무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열매되고는 스승리운 투쟁입니다.》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기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이 무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열매되고는 스승리운 투쟁입니다.》

올해에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석탄증산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석탄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계획있게 추진되었으며 순천, 덕천, 북창, 개천, 독장지구의 탄광들을 비롯한 나라의 전방적탄광에서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큰 규모의 공사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각지 탄광들에서 당창건 65돐까지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칠것과 수많은 광물과 채탄중대물, 고속도굴진 및 굴진소대에서 연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는 각지의 탄부들은 대고조전투장에서 새로운 위훈을 수놓아가고 있다.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공지에 넘쳐있는 우리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지난해 투쟁과정을 통하여 배태로 높여진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석탄증산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각오와 의지로 충만하였다.

우리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혁명적대교조의 봉화를 더 높이 추켜들고 석탄증산투쟁을 본매있게 벌려 화력발전소들과 금속공장들, 화학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증산에 필요한 석탄을 원만히 생산보장함으로써 뚜렷한 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부루덩당히 들어섰다.

석탄공업상 김형식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일치한 의사와 념원에 따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 기업소인민의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장군님의 사상과 명도를 더욱 충성하게 받들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확신성있게 명도하여온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있으며 자기들의 운명을 당에 전적으로 맡기고 당의 명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당과 혁명의 불패성의 상징이시며 장군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성하게 받들어나가는데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배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주체적인 비로생산공정 완성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어머니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에만 하면 불행이 없으며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기업소인민의 모든 당조직들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로 역세게 키워나갈데 모든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당위원회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종업원들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교양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 누구나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가장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도록 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대고조전투가 벌어지는 벅찬 환경에 맞게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신속있게 짜고

들여 그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선봉투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도록 이끌어나갈것이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공지에 넘쳐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벌려나가는 대중의 심정마대에 불을 달아주는 화선적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전투장마에서 비약의 폭풍이 세계에 일게 하겠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방법론있게 진행하여 남흥의 당원들과 로동계급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용맹한 돌격대의 본분을 다해나갈수 하겠다.

남흥첨진화학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전 경선

조직과 지도를 신속있게 짜고

들여 그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선봉투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도록 이끌어나갈것이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공지에 넘쳐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벌려나가는 대중의 심정마대에 불을 달아주는 화선적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전투장마에서 비약의 폭풍이 세계에 일게 하겠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방법론있게 진행하여 남흥의 당원들과 로동계급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용맹한 돌격대의 본분을 다해나갈수 하겠다.

남흥첨진화학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전 경선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격동적인 소식을 크나큰 기쁨속에 받아안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계급 본사기자 김 광혁 찍음

일본은 과거청산을 더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과거는 되풀이될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역사를 돌이켜 보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그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있다. 역사에서 배운다는 말도 있다. 국제사회에는 실사지단담 그릇된 역사를 가지고있는 나라들이라고 해도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고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공정한 여론은 죄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이제라도 지난날의 죄과를 중심으로 반성하고 그에 배상을 따라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정권자들의 행동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일정간 일본수상 간 나오토가 8.15와 《한일합병》100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발표한 《담화》라는것을 보아도 그렇다.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사죄의 담화라 선 《담화》가 아니라 과거 일제의 죄행을 약화시키고 그 청산을 어렵게해버리는 알은 오그랑수에 불과하였다.

우대 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이 그릇된 과거를 진실으로 반성하는것을 넘어 위해서라도 자기자신을 낚아챌 필요도 없으니이다》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은 아시아의 이른 곳마다에서 극악무도한 파괴와 약탈, 살육민행을 감행하였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하고 감행한 피비린내나는 살육민행과 약탈행위는 국제법적경지에서 말할것과 없고 인륜도덕과 양심에도 완전히 배치되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이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만도 840만여명을 강제징병, 랍치하고 100여만명을 학살하였다. 특히 일제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면행, 랍치, 유괴하여 일본군위안부 전장으로 끌고다니며 성

노예생활을 강요하고 무참히 살육한 범죄에 대한 일본의 솔직한 인정은 사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일본수상은 이번 《담화》에서 일본군위안부제도를 비롯한 특대형반인륜범죄문제에 대해 일인 반수도 하지 않았다. 10대의 소녀로부터 지어 유부녀들까지 랍치, 강제면행, 유괴하여 전쟁터에 끌고다니면서 일제침략군의 성노예로 만든것은 그 어느 전쟁사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사람의 두뇌로써는 상상할수 없는 극악무도한것으로서 오늘날 만사람의 처를 떨게 하고있다.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간 녀성들이 일제침략군에 의해 온갖 정신육체적 고통을 강요당하다가 그 절대다수가 고향향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산실고 물결은 이국 땅에 묻히고말았다. 일본군위안부성공자들은 지금도 일제에 대한 원한의 피 값을 받아내기전에 죽어도 눈치를 감출수 없다고 언론을 도하고있다.

일본당국자가 과거 역사를 올바르게 인정했다면 이 문제부터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립장을 명백히 표명했어야 했을것이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죄행에 대해 어떻게 배상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적 진실성을 증명한 하나의 중요한 척도라 된다. 일본이 백 번 《사과담화》를 발표해도 과거 죄과를 가지기 위한 배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민발로만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일본수상이라는 사람은 《사과》발언을 하면서 배상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피했다.

사죄와 배상을 똑바로 하자면 그

와 관련한 사회적분위기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벌어져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지난날의 죄악을 똑똑히 밝히고 평화와 진보의 길로 새 출발을 가려 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상을 가려우고 영영 역사를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과거의 침략이 아시아나라들을 유미결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것이였다 하니, 아시아나라들이 일본때문에 《발전》하고 《번영》할수 있는 기회가 되고있는것을 유미결강으로 침략력사를 전면부정, 외곡, 찬양하는 소리들이 일본에서 거침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일제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을 반대하여 감행한 침략과 전쟁행위를 백인들의 《침략》과 《통치》로써 아시아인들을 《보존》하고 《해방》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 《정의의 전쟁》으로 미화부식하고있다.

일본의 과거침략행위를 《합법적》이었다고 정당화하다 못해 일본이 《좋은 일》을 하였다가 철면피하기 지그없는 망발까지 쫓고있는자들이 과연 무슨 사죄를 똑바로 하겠는가.

일본반동들은 아시아인들의 감정과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전차》참배를 계속함으로써 아시아인들의 마음을 갈칼질 하고있다. 그들은 외국수반들이 일본방문시 《야스쿠니전차》에 찾아가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있다. 일본당국자가 외국방문시 해당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련사들에게 《경의》를 하려때문

에 그에 맞게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수반들도 《야스쿠니전차》를 찾아 《경의》를 표하는것이 외교관례상 옹당하고 자연스러운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반대하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다른 나라의 련사들과 해외침략의 길에 나섰다 죽은 자들을 동일시하는 일본의 태도와 립장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저렬하고 파멸치한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일본이 과거범죄행위에 대하여 그동안 피장사를 취하고있는것은 그들이 단순히 배상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만 볼수 없다. 일본이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것은 《대동아공영권》의 열망을 실현하려는 상상에서 비롯된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일제침략행위를 백인들의 《침략》과 《통치》로써 아시아인들을 《보존》하고 《해방》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 《정의의 전쟁》으로 미화부식하고있다.

일본의 과거침략행위를 《합법적》이었다고 정당화하다 못해 일본이 《좋은 일》을 하였다가 철면피하기 지그없는 망발까지 쫓고있는자들이 과연 무슨 사죄를 똑바로 하겠는가.

무력의 현대화, 원거리화가 적극 추진되고 전시체제가 수립되고있다. 《경의》를 표하는것이 외교관례상 옹당하고 자연스러운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반대하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다른 나라의 련사들과 해외침략의 길에 나섰다 죽은 자들을 동일시하는 일본의 태도와 립장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저렬하고 파멸치한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일본이 과거범죄행위에 대하여 그동안 피장사를 취하고있는것은 그들이 단순히 배상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만 볼수 없다. 일본이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것은 《대동아공영권》의 열망을 실현하려는 상상에서 비롯된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일제침략행위를 백인들의 《침략》과 《통치》로써 아시아인들을 《보존》하고 《해방》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 《정의의 전쟁》으로 미화부식하고있다.

일본의 과거침략행위를 《합법적》이었다고 정당화하다 못해 일본이 《좋은 일》을 하였다가 철면피하기 지그없는 망발까지 쫓고있는자들이 과연 무슨 사죄를 똑바로 하겠는가.

청산은 세계민심의 요구이며 대세군하게 반성, 사회하고 청산하는것은 가해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지닌 마땅한 의무이고 인륜도덕이며 국제법칙이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은 시대의 추세에 역행하고있다. 철면피하기가 틀레 없는 일본은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과거범죄에 대해 인정도 반성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아시아인민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에게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대대적 오페라의 문제를 중요하고 현실적문제처럼 취급하는것은 《잘못된것》이라는 쟁점을 놓아놓고있다.

현시기 일본앞에 나서는 선적과제는 죄 많은 과거를 청산하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일제때말후 국제법판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은 일본앞에 나서는 최대의 과제는 과거범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죄와 배상을 하는것이었다. 그런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와 반대로 과거범죄를 부정, 외곡하는 길로 나가므로써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있다.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저들의 야심적인 정치군사적목적 실현을 위해 인류와 세계를 희생시키는것도 마다하지 않으며 일본군국주의를 규탄배격하는 목소리는 세계도처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최근 도이첸랜드의 한 단체는 일본이 무력을 동원하여 강도적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남조하고 우리 나라를 병탄한지 10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에 감행한 민족말살정책과 자연부원탁탈, 성노예생활강요 등 전대미문의 범죄는 일본군국에 의한 국제법칙해당이고 하면서 일본이 조선민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남조선의 각계 녀성 100여명은 올해에도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일제의 과거죄행을 청산하지 못한 치욕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과거 성노예범죄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고 문제를 솔바로 해결할것을 주장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틀만이나 세계가 인류력사에 류태없는 범죄를 감행한 일제를 저주하며 일본이 하루빨리 과거청산을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본은 세계민심을 똑바로 알고 과거죄행에 대하여 면회하거나 련사속에 묻어버리고서 더는 오그랑수를 쓰지 말아야 한다. 과거청산은 일본이 어느때든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과제이고 책임이다. 제대로 풀리지 않고 일시 봉합한 상체는 피로하지기 마련이다. 일본이 과거청산을 계속 회피하면 국제사회의 더 큰 규탄배격과 고립을 면치 못할것이다. 일본은 과거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에게 끼친 범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깨끗이 청산하는것이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용단을 내려야 한다. 리 현 도

9월 29일 유엔총회 제 65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장인 박건연 외무성 부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올해에 유엔은 창립 65돐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유엔이 걸어온 지난 65년 간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의 역사이기도 하다.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국제법에서는 주권평등을 부정하는 힘의 논리, 힘의 정치가 사라지지 않고있다. 국제법과 국제질서가 개별적대국의 권리와 강권에 의하여 유린되고 파괴되는 상황이 지속되고있다.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침공과 군비증강, 힘의 위력이 중대되지 않았고있으며 각종 명목들로 정당화되고있다.

다른 나라의 사회적체제를 모방적인 방법으로 뒤집어엎으려는 비열한 시도들이 우습게되고있다. 《인권옹호》라는 간판과 유엔총회라는 기구적합체를 이용하여 도용되고있다.

여는 나라 국민의 제도선택권을 부정하는 자체가 곧 그 나라 인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다. 안전보장이유엔헌장의 대 표권과 의사를 정확히 보장할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유엔총회 제 65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장 연설

유엔이 창립된 이후시기에 자주 독립을 쟁취한 새로운 유엔성원국집단인 몰락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것이다.

유엔총회의 권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유엔안에서 가장 민주적인 안전보장이유엔헌장의 대 표권과 의사를 정확히 보장할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조선반도는 중동과 더불어 세계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성적인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1975년 유엔총회 제 30차회의는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공안정화를 위한 조치로서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때로부터 35년이 지나지만 조선반도에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전전상태가 그대로 존속되고있다.

유엔총회의 결의가 리행되지 않았다는 속에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발전노력은 항시적인 위협과 침해를 당하고있으며 조선반도에는 전쟁정경에 이르는 폭발적인 정세가 주기적으로 조성되고있다.

가장 최근의 실례가 바로 《천안》호사건을 기화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대대적으로 벌려놓은 해상 해군교섭의 무력시위, 무력증강, 무력위협소동이다.

이번에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에 조성된 일축축박의 사태는 미국이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평화의 파괴자라는것을 다시 한번 여지없이 증시하였다. 미국의 함포포함기 우리 나라의 주변바다를 들이치는 한 절대로 핵억제력을 포기할수 없으며 반대로 그것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확실한 교훈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요청한 대로 그 주변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적경제적 발전과 풍요의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유엔성원국으로서의 숭고한 의무로 간주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에 기결인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없었더라면 조선반도는 벌써 몇번이고 전쟁터로 화했었을것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여지없이 깨어졌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란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하여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쏟으시라는 공화국정부와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평화적환경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로 교체하기 위한 희망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자들에게 제안하였다. 이것이 실현되면 유엔총회는 35년전에 채택한 역사적인 결의가 드디어 리행과정에 들어서는것을 기대 될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은 당사국들사이의 불신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선언의 채택, 2007년에 있는 북남수뇌회담의 실현을 담보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될것이다.

핵전쟁과 핵군비경쟁, 핵전력 확대를 반대하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조선반도비핵화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 진지해오고있는 정책적목표이다.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조선반도비핵화는 정경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조하여 전조선반도를 핵무기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미 천명반바와 같이 우리가 보유한 핵은 결코 남을 공격하지 아니하며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명실공히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한 자위적억제력이다.

우리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립장에서 국제적인 핵전과 방지와 핵물질의 안전관리노력에 함께할 용의가 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적국의 분별처리에 종사자를 계속

통일된 강도에서 평화롭게 살려나가는것은 전세 조선민족의 숙원이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북남관계에서는 화해와 공영, 통일을 지향한 중대한 전진이 이룩되었다.

2000년에 있는 역사적인 북남수뇌회담과 6.15공동선언의 채택, 2007년에 있는 북남수뇌회담과 10.4선언의 발표는 우리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일대강을 마련해주었다.

이 력사적인 선언들은 유엔총회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불행하게도 현 남조선당국은 이 통일대강을 부정하고 3단계 선언의 채택, 2007년에 있는 북남수뇌회담과 10.4선언의 발표는 우리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일대강을 마련해주었다.

남조선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외세와의 전쟁연습과 대결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자 하며 반대로 안전보장이유엔헌장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외세와의 전쟁연습과 대결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자 하며 반대로 안전보장이유엔헌장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중국 신 문

우리 나라 영화예술발전 소개

중국의 《한구시보》 9월 21일부가 우리 나라에서의 영화예술발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평양영화축전은 국제적수준이라고 하면서 축전의 명칭과 목적 그리고 제 12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수석기 나라의 영화들이 출품된데 대하여 열거하였다. 신문은 최근 우리 나라에서 《한 너학생의 일기》, 《내가 본

영국 방송

녀자 축구 선수단의 우리 나라 방문인상 보도

영국의 BBC방사가 9월 24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영국 미들즈브러시너자축구선수단의 회견소식을 보도하였다. 방송은 미들즈브러시너자축구선수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에 걸은 감명을 표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들즈브러시너자축구선수단에게 대해 주었다고 하면서 친선을 도모하려는 선수단의 방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근로자들의 생활처지 악화

일본국세청은 9월 28일 또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계속 조사를 통해 인용하여 지난해는 임금감소로 근로자들의 생활처지 더욱 악화되었다. 이 그 전해에 비해 5.5%



【조선중앙통신】

중국 신 문

우리 나라 영화예술발전 소개

중국의 《한구시보》 9월 21일부가 우리 나라에서의 영화예술발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평양영화축전은 국제적수준이라고 하면서 축전의 명칭과 목적 그리고 제 12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수석기 나라의 영화들이 출품된데 대하여 열거하였다. 신문은 최근 우리 나라에서 《한 너학생의 일기》, 《내가 본

영국 방송

녀자 축구 선수단의 우리 나라 방문인상 보도

영국의 BBC방사가 9월 24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영국 미들즈브러시너자축구선수단의 회견소식을 보도하였다. 방송은 미들즈브러시너자축구선수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에 걸은 감명을 표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들즈브러시너자축구선수단에게 대해 주었다고 하면서 친선을 도모하려는 선수단의 방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근로자들의 생활처지 악화

일본국세청은 9월 28일 또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계속 조사를 통해 인용하여 지난해는 임금감소로 근로자들의 생활처지 더욱 악화되었다. 이 그 전해에 비해 5.5%



【조선중앙통신】

미국사회의 부패성을 폭로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켈레드 알리 카메네이가 9월 28일 한 담화석상에서 미국사회의 부패성을 폭로하였다. 그는 수백만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왔았기나 극심한 한지에 시달리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사회의 현실이라고 까박했다. 미국에서는 소수특권계층이 재부를 독차지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 나라 일반주민들의 생활형편은 이를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란인민은 미국의 배전주의에 맞서싸울 결의에 충만되어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로씨야 대통령 중국 방문

무연총리와 각각 만나 담화를 하였다. 회담과 담화문에서는 쌍무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

되었다. 방문과정에 여러건의 협조문건이 조인되었다. 체류기간 로씨야대통령은 대련, 베이징, 상하이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이란공포증》조작극에 숨겨진 전쟁흥계

이란 2년동안에 지역나라들에 250억US\$어치의 무기를 팔았다는 미국은 앞으로 600억US\$이상에 달하는 무기를 또 판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8월 미합중국참모본부의 장은 미국 NBC방출국의 회견에서 미국은 《핵무기제조를 막기 위해》이란을 공격할 비롯없는 계획을 가지고있다고 제창해나갔다.

총기류 범 죄

미국에서 총기류범죄사건이 피러를 몰고 일어나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있다. 9월 28일 마사츄세츠주의 한 거리에서 정체불명의 무장한 범죄자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압 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압민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9월 24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의 북부지역 알타데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던 배에 사격을 가하여 1명의 팔레스타인어부부 살해하였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요르

자 연 고 해

메히코의 치야바스주에서 최근 태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를 동반한 태풍으로 9월 26일현재 수백명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이 파괴되었으며 강물이 넘어나고 교통이 마비되었다. 현지에서 구조조치가 취해지고있다. 한편 메히코의 오아하카주에

협 조

중국과 수단이 9월 27일 생물에너지기공을 위한 공동대상건설을 시작하였다.

같은 날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호상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9월 26일 중국과 에리트리아에 공동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었다.

민공청산노력

인도네시아에서 민공청산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올해 3월까지 나라의 빈곤율은 2004년의 16.7%로부터 13.3%로 감소되었다. 9월 27일 이 나라 대통령 수실로 발람 유도노노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